

초등 학생평가 시행 현장의견 청취

도교육청, 2024학년도 평가 시행·지원 계획안 공청회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학생평가 전문성 신장 지원 제언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2일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 초등 학생평가 시행 및 지원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북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초등 학생평가 시행 및 지원 계획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참여를 신청한 교원 200여 명과 학부모 100여명이 참여했다.

먼저 유초등특수교육과 조경은 장학관이 2024학년도 초등 학생평가 시행 개요 및 주요방침과 세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세부 추진 방안에서 학생 개개인의 교육목표 도달에 대한 진단과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및 교원의 학생평가 전문성 신장 지원을 제언했다.

김선(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 연구소 부소장) 교수가 '평가는 학생의 학습을 어떻게 돕는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평가의 시기와 유형 및 결과는 학생의 학습 성취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를 통한 데이터 분석으로 효과·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료는 정읍남초 남궁상운 교장, 진안교육지원청 오현욱 장학사, 정우초 강한 교사가 참여했다.

남궁상운 교장은 학생평가의 대전환으로서 과정중심평가가 총괄평가가 융합되고, 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천천히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욱 장학사는 결과중심평가를 정(正)으로 과정중심평가를 반(反)으로 제시하면서, 2024 전북 초등 학생평가 시행 및 지원 계획을 통해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의 함(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한 교사는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을 객관화해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이 강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 초등 학생평가 시행 및 지원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화되고, 교원의 평가 전문성 신장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분석해 교육현장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2024년 전북 초등 학생평가 시행 및 지원 계획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며, 변화는 고통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평가는 필요하다"면서 "학업성취수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학생에게는 맞춤형 학습지원, 교사에게는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 말했다. /김재훈 기자

안전관리 우수 '정부 인증'

전북대 원예학과 원예생명공학연구실... 도내 대학 '최초'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원예학과 원예생명공학연구실(연구책임자 강범창 교수)이 안전관리가 매우 우수한 연구실이라는 정부 인증을 받았다.

원예생명공학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심사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을 받은 것은 전북대 원예생명공학연구실이 전북지역 대학 가운데는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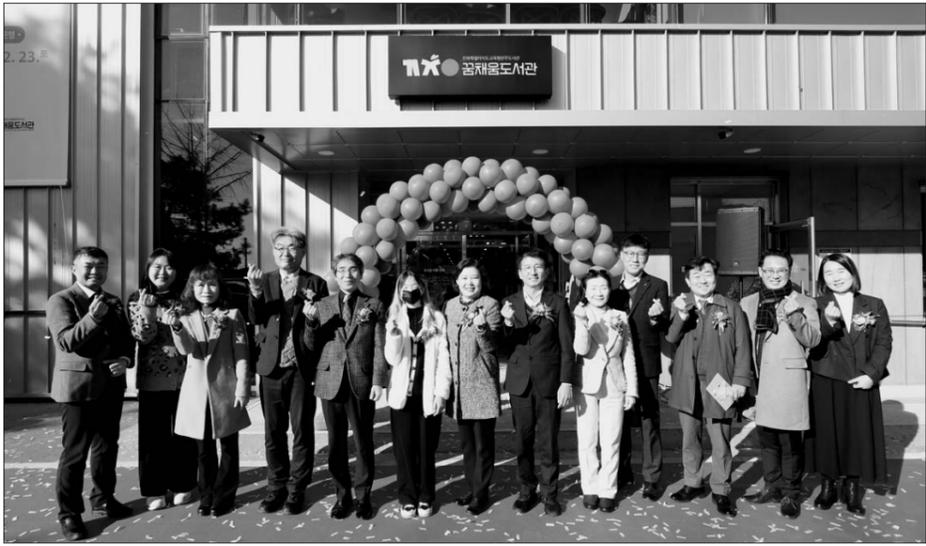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국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원예생명공학연구실은 주로 특정 생물체에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에 유전자와 결합시켜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유전자의 일부를 변형시키는 기술을 연구하는 공간으로, 생물체 유전자 및 화학물질 등을 취급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이 연구실은 대학 안전보건관리부와 협력하여 안전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구축하는 등 안전환경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왔다. 또한 높은 안전의식을 기반으로 연구실 정밀점검 및 수시점검, 유해 요소 발굴 및 개선, 안전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활동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북대 송철규 연구부총장은 "연구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끊임없는 안전 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관리 인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교육청 완주도서관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재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새 단장' 완주도서관, 학생·학부모 품으로

'꿈채움' 재개관... 시설 현대화 위해 1년여간 증축·리모델링, 복합문화공간 자리매김 기대

전북도교육청 완주도서관이 1년여간의 증축·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

전북도교육청 완주도서관(이하 완주도서관)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재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8년 개관 이래 학생·학부모를 위한 독서문화 공간으로 사랑받아온 완주도서관은 공간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 1년여간의 증축·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유아 자료실·보존 서고 등으로, 2층은 종합자료실·꿈마루·채움마루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념식은 봉동초등학교 관악부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도의원 및 시·군 교육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재개관을 축하했다.

더불어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도 진행됐다. 이용자들은 '최소 1일 독서학교', '책 읽어주는 미술 공연', '인더레센 동화 콘서트' 등의 행사를 즐겼다.

전북도교육청 완주도서관 육경아 관

장은 "전북도교육청 완주도서관은 완주군에서 최초로 건립된 전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서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독서·문화·소통의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축하 영상을 통해 "도서관은 책을 통해 꿈을 가꾸고,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지혜의 보고"라면서 "도서관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아끼게 기다리고 있는 책들과 함께 꿈채움도서관에서 즐거운 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대-이랜드 산학협력 교육 '비스타' 23기 수료식

(beSTAR)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이랜드(회장 박성수)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beSTAR 프로그램을 12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1일에 23기 수료식을 했다고 밝혔다.

beSTAR 프로그램은 지난 2012학년도부터 기업과 대학이 함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기업우수인재육성과정'(3학점)을 개설하여 이랜드 임직원들이 직접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왔다.

강의 주제는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부터 프로젝트 수행의 의미와 원리, 그리고 외식·패션·호텔산업 현장에서 문제 해결 방법까지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고객까지 중심 스토리텔링(이앤씨월드 수상배 대표), 프로젝트 문제해결(이랜드인재원 김용채 상무), 비즈니스 의사소통(링크앤플랫폼 한민정 팀장), 강점을 이해한 자기 소개서와 인생 로드맵(이랜드리테일 유통 BG HO실 안재희 실장, 김시영 팀장, 문기대 팀장), 그리고 현장 비즈니스에 이랜드이츠 조성우 확산총괄

팀장, 이랜드리테일 특정 운영 이승훈 부부장(전 NC wave 전주점 지점장) 등의 강의로 구성됐다.

지난 12월 21일(목)에는 우수 프로젝트 발표 및 수료식이 열렸으며 최우수 팀 미소 공간 재배치를 통한 문제해결(김세영 김효림 최지우) 발표가 있었다.

이번 비스타 23기 수료생은 문화관광대학, 경영대학, 문화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의과대학 총 21명이었다.

비스타는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실무현장의 이야기를 이랜드그룹 임직원들에게서 직접 듣고 커리어개발과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김재훈 기자

무장독립운동 투쟁사 연구 기여

전북대 윤상원 교수
'우당학술상' 수상
러 독립운동 사료 발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윤상원 교수(인문대 사학과)가 독립운동사 연구에 기여한 학자를 선정해 수상하는 우당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우당교육문화재단(이사장 이종찬)이 독립운동가인 우당(友堂) 이희형 선생(1867~1932)의 뜻을 잇기 위해 독립운동사에 공적이 많은 학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전북대 윤상원 교수는 러시아 지역의 독립운동 관련 사료를 발굴해 무장독립운동투쟁사와 흥분도 장군의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상원 교수는 "우리 독립운동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저의 연구들은 이 상을 통해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산대의 독립운동이 후대에 길이길이 기억될 수 있도록 더욱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

올 한해 산학연 협력 성과 공유

전북대, '2023 JBNU 산학연 협력 페스티벌'

기술개발 성과 전시·학생 경진대회 시상 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올 한해 동안 산학연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2023 JBNU 산학연 협력 페스티벌'을 지난 21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대 LINC 3.0 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우수한 산학연협력 성과를 전시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학협력 기술개발 성과 전시를 시작으로 산학연계 교육과정 경진대회 시상식과 가족회사 Biz day로 나누어 진행됐다.

특히, 사업단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2024년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전시 행사인 CES 2024에 대하여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전시하기 위해 사업단 지원과 마케팅 지원을 했고 그 성과로서 전자공학부 송철규 교수 연구팀의 실시간 혈전 이미징 장치 CES 2024 혁신상을 전북 지역 역대 최초로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이에 사업단에서는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과 CES 2024 유레카파크에 전시될 예정인 제품 총 4종을 CES 2024보다 먼저 전시해 관람객을 맞았다.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산학연계 교육 과정에 대한 우수 성과를 시상하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도 진행됐다. 대상은 배수구 내외로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기기를 제작한 전기공



학과 FCD 팀이 총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업단에서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실질적인 참여 기업의 매출 증진을 위해 공공판로 개척 지원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공공 판로 개척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공공구매 상담회도 구성된 가족회사 Biz day를 개최했다. 참여기업은 총 30개사로 공공 판로 개척을 통한 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올해 사업단의 지원을 받은 전북 김제 소재 C사가 매출 14억원이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지역 기업의 해묵은 과제인 우수 인력 수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회사 대상 잡페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졸업 예정인 학생들이 직접 참여기업의 정보를 듣고 취업으로 실제 연계될 수 있는 상담회를 운영했다. 매서운 한파에도 6개 기업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김재훈 기자

지역아동 AI 격차 완화 프로젝트 우수성 인정

전북대 취업동아리 '꿈',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도지사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취업동아리인 '마케팅학회 꿈'이 최근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로 최근 개최된 2023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전북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마케팅학회 꿈은 문화통신사업조합과 평화사회복지관이 주최한 '2023 전북 청년 V-Stor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 제1회 해커톤대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AI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등을 수행했다.

이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두개 팀으로 나눠 각각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AI 지역 격차 완화 프로젝트를 리얼월드 앱을 활용한 방탈출 게임을 통한 익산 중앙동 활성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의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실행을 기반으로 지역 아동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지역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이번 수상보다 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청년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